



미국 : 예일대 대학원생, 노동조합 결성

2017년 2월 23일, 예일대(Yale University)의 수업조교(teaching assistants)들은 유나이티드 히어(UNITE HERE)에 가입하여, 2016년 여름 미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관련 법안을 개편한 이후 가장 최근에 노조에 가입하게 된 사립대학의 대학원생이 되었다. 예일의 노조 조직위원들은 대학의 승인을 가속화하고 노조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개별 학과가 별도의 선

거를 실시하는 특별한 방법을 취했다.

- 출처 : The Washington Post, 2017년 2월 24일자, “Yale graduate students vote to form a union”,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grade-point/wp/2017/02/24/yale-graduate-students-vote-to-form-a-union/?utm_term=.b38453150674

미국 : 자동차노조, 노조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닛산(Nissan)을 미국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

미국 자동차노조(United Auto Workers union)는 자동차 제조기업 닛산을 연방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동료직원들에게 노조 투표를 허가하는 카드에 사인을 요청하는 것을 회사의 보안요원이 부당하게 저지하였다는 것이다. 노조 측 변호사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미국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에 고발하였다.

- 출처 : CNBC, 2017년 3월 3일자, “Nissan accused of wrongly blocking union activity at plant”, <http://www.cnn.com/2017/03/03/the-associated-press-nissan-accused-of-wrongly-blocking-union-activity-at-plant.html>

미국 : 미국 경제에 미칠 대규모 강제추방의 부정적 영향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으로의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작업속도를 높이고 있

다. 취임 직후 며칠 동안 트럼프는 여러가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다. 동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를 위



해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 가능하게 하고,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방지하는,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인도적이고 신속하게 본국으로 송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특정 무슬림 국가의 입국을 제한하고 숙련 기술 보유 이민자에 대한 H-1B비자 발급을 어렵게 만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출처 : U.S. News, 2017년 3월 10일자, “Mass deportations could hurt the economy”, <https://www.usnews.com/news/the-report/articles/2017-03-10/mass-deportations-could-hurt-the-economy>

미국 : 시애틀 리프트(Lyft) 및 우버(Uber) 운전자들, 시애틀시의 조직화를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

시애틀에 있는 12명의 리프트(Lyft) 및 우버(Uber) 운전자들은 이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애틀 시의 노조법을 무효화하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연방법원으로 소송을 가져가서, 시애틀 시가 노조법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restraining order)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이 연방정부의 노동법과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자유 발언의 권리와 노

조 결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 The Seattle Times, 2017년 3월 13일자, “Some Seattle Lyft, Uber drivers sue over city’s unionization law”, <http://www.seattletimes.com/seattle-news/transportation/some-seattle-lyft-uber-drivers-sue-over-city-unionization-law/>

캐나다 : 온타리오 주, 노동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중간보고서 발표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1995년에 제정된 노동관계법(Labour Relations Act, 1995)과 2000년에 작성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이 변화하는 오늘날의 경제 및 노동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014년에 노동법을 개

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2017년 2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작업장의 특성을 검토하고 노동관계법과 고용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현 규정의 한계 및 개선을 위한 의견을 담은 중간보고서 “The Changing Workplaces Review”를 발표하

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출처 : 온타리오 주 노동부 홈페이지, “The Changing Workplaces Review”, [https://](https://www.labour.gov.on.ca/english/about/workplace/index.php)

www.labour.gov.on.ca/english/about/workplace/index.php

캐나다 :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17년 연방정부 예산 발표

트뤼도 정부는 2017년 3월 22일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연방정부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는 교육수준이 높고,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변화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위해 습득하는 기술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빌 모뉴(Bill Morneau) 재정부 장관은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캐나다인들을 변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캐나다를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고 더 혁신적이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말했다. 견고한 중산층을 구축하는 것을 주제로 한 이번 예산안은 기술혁신, 기술, 파트너십 및 공정성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 출처 : 캐나다 정부, “Budget 2017”, <http://www.budget.gc.ca/2017/docs/download-telecharger/index-en.html>

EU : 2017년 EU 28개 회원국 중 22개 회원국에서 법정최저임금제도 시행, 금액은 월 1,999유로에서 235유로로 최저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커

2017년 1월 기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 회원국에서 법정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크다. 신규 회원국의 최저임금이 월 500유로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며(불가리아가 BGN 460(235유로)으로 제일 낮음), 월 500~1,000유로인 중간 수준에는 신규 회원국 중 몰타와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이 포함

되어 있다. 대부분 구 EU 회원국(EU-15)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1,000유로 이상이다(룩셈부르크가 월 1,999유로로 최고 수준이며, 최저 수준인 불가리아의 8.5배임).

- 출처 : Eurofound Observatories, Articles, 2017년 2월 9일자,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https://www.eurofound.org>



europa.eu/observatories/eurwork/
articles/statutory-minimum-wages-in-

the-eu-2017

영국 : 대법원 연차휴가 중 임금 산정 시 성과수당 포함

지난 2월 28일 영국 대법원은 British Gas의 상고심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연차휴가 중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 산정 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수당(commission)이 포함돼야 한다고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2년 4월 Joe Lock(이하 '원고')이 소속 회사인 British Gas(이하 '피고')를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핵심쟁점은 피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에서 성과수당을 제외한 것이 위법

한지 여부였다.

- 출처 : 벨파스트텔레그래프, 2월 28일자 기사, "British Gas refused right to appeal in holiday pay commission case", <http://www.belfasttelegraph.co.uk/news/uk/british-gas-refused-right-to-appeal-in-holiday-pay-commission-case-35491645.html>

영국 : 실질임금 2007년부터 15년간 동결될 것으로 예상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을 앞지르면서 실질임금이 2년만에 첫 하락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여금을 포함한 총 급여는 2016년 1월에 비해 1.7% 증가했으나 1.8%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 총 임금 인상률은 올 1월까지 3개월간 2.2%로 이전 분기의 2.6%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으며, 실질임금 상승률은 0.7%로 최근 2년간 가장 저조한 성

적이다.

- 출처 : 가디언 지, 2017년 3월 9일자, "No pay rise for 15 years, IFS warns UK workers",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7/mar/09/uk-pay-growth-budget-resolution-foundation>

영국 : 항소법원, 장기병가 근로자 해고 기준에 대한 지침 제시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최근 판결 (*O'Brien v Bolton St Catherine's Academy*[2017] EWCA Civ 145, 2017.3.15)에서 장기병가 중인 근로자의 정당한 해고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원고는 고용심판소에서 이 해고가 평등법(Equality Act)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서 위법하며 불공정해고인 점을 다투어 승소했다. 이 결정은 고용항소심판소에서 기각되었으나 다시 항소법원에 의해 인용되었다. 당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결정을 하기

에 앞서 재판부의 Underhill 판사는 장기병가 중인 근로자, 특히 병세와 회복시기가 불확실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 출처 : Personnel Today, 2017년 3월 21일자 기사, "Long-term sick leave dismissals: court guidance on borderline cases", <http://www.personneltoday.com/hr/long-term-sick-leave-dismissals-court-guidance-borderline-cases/>

영국 : 브렉시트로 인한 구인난 심화

건설, 농업, 제조업부터 주택, 호텔 및 요식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EU 회원국 근로자 수는 230만 명으로, 2016년 10~12월 사이에 5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주로 은행, 공공 부문 및 건설 부문의 근로자가 영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영국을 떠나는 EU 회원국 근로자의 수가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

나, 최근 발표된 영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출처 : 가디언 지, 2017년 3월 25일자, "The British jobs Brexit makes hard to fill",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7/mar/25/brexit-eu-nationals-exodus-jobs-recruitment>



스웨덴 : 정부 외국인 근로자 추방과 관련하여 노동 이민 관련 법률을 재검토할 예정

최근 스웨덴에서는 고용주의 실수 혹은 행정상 실수로 인해 근무 중인 외국인들이 추방되는 몇몇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추방 사례와 관련하여 법무 및 이민 장관 모르간 요한손 (Morgan Johansson)은 노동 이민과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웨덴 정부는 위원회 구성 후 올 봄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The Local, 2017년 3월 19일자, “Swedish government announces inquiry to tackle deportations of foreign workers”, <https://www.thelocal.se/20170319/swedish-government-announces-plans-to-tackle-deportations-of-foreign-workers>

스웨덴 : 왕립공학원, 영어 구사가 가능한 이민자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마련

공학, 자연과학, 경영 및 재무 등을 대학에서 전공한 이민자들의 스웨덴 노동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Jobbsprånget이라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스웨덴 왕립공학원(Royal Swedish Academy of Engineering Sciences: IVA)을 통해 새로이 소개되었다.

•출처 : Radio Sweden, 2017년 3월 21일자, “New job scheme for English-speaking professionals”, <http://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6656534>

프랑스 : 실업률 하락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느린 편

유럽의 실업률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실업률은 2년 연속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ILO의 기준에 따라 프랑스통계청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이 실시한 2016년 4/4분기 노동가용인구 중 실업률은 9.7%였다. 2015년 같은 시기

와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약 0.2% 감소했다. 이는 여전히 280만 명 정도가 실업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의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6만 8천 명 정도 줄어든 것이다.

•출처 : Écho, 2017년 2월 16일자, “Le chômage recule moins vite en France que

dans la euro zone”, <https://www.lesechos.fr/economie-france/social/0211805922278-le-chomage-recule-moins-vite-en-france-que-dans-la-zone-euro-2065615.php>

일본 : 후생노동성, 2017년 ‘지역 활성화 고용 창출 프로젝트’ 추진할 11개 도도부현 선정

3월 29일 후생노동성은 2017년 ‘지역 활성화 고용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할 11개 도도부현을 결정하였다. 2016년 창설된 ‘지역 활성화 고용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고유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채택된 11개 도도부현은 각각 아오모리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니가타현, 도야마현, 야마나시현, 돗토리현, 에히메현, 고치현, 나가사키현, 가고시마현이다.

청년층 인구가 지역 외부로 유출되어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지리적 요인의 특성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당 프로젝트는 각 도도부현이 제안한 사업 구상 중, 산업 정책과 대응하여 안정적인 정규직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을 평가하여 11개 도도부현

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연간 10억 엔의 상한 예산을 두고, 전체 사업 비용의 80%를 국가가 보조한다. 채택된 지역은 지역 관계자(지자체, 경제단체, 금융기관, 교육·연구기관 등)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하여 노동국이나 헬로워크 지역 관계자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생노동성은 2016년 하반기 이시카와현, 아이치현, 미에현, 교토부, 사가현, 미야자키현을 ‘지역 활성화 고용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올해에는 11개 도도부현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출처 :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2017년 3월 29일자, 平成29年度「地域活性化雇用創造プロジェクト」の採択11地域を決定しました, <http://www.mhlw.go.jp/stf/houdou/0000156394.html>



베트남: 전문대와 직업학교 관할권 변경으로 향후 정규대 졸업자는 과잉, 숙련된 기술근로자는 부족할 수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이하 노동부)는 최근 500개 이상의 전문대학교와 직업전문학교(이하 '전문대·직업학교')에 대한 관할권을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2017년부터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입시 전형(THPT)에 응시하는 경우 사범계열을 제외하고 전문대·직업학교를 선택하고 지원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향후 학생들의 정규대학교 학위 선호로 인한 쏠림 현상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정규대학교 학생 유치 지원정책

으로 인해 전문대·직업학교들은 학생모집과 선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규대학교 졸업자의 과잉과 전문기술인력의 부족 역시 우려되고 있다.

•출처: 노동자신문, 2017년 3월 1일자, *Diệp khúc* “thừa cử nhân - thiếu thợ giỏi”, <http://nld.com.vn/cong-doan/diep-kuoc-thua-cu-nhan-thieu-tho-gioi-20170301104827117.htm>

베트남: 기업에 부는 '5S' 바람

최근 베트남의 많은 기업이 생산관리에 5S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S는 베트남어의 *sàng lọc*(도태), *sắp xếp*(정렬), *sạch sẽ*(청결), *sẵn sóc*(살핌), *sẵn sàng*(준비)의 앞글자인 5개의 S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근로자의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생산관리 시스템을 뜻한다. 이는 주로 일본기업에서 많이 시

행되고 있는 제도로 이를 벤치마킹 한 몇몇 베트남 기업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전해지면서 베트남 내 다른 많은 기업이 이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출처: 노동자신문, 2017년 3월 18일자, *Tao thói quen tốt cho công nhân*, <http://nld.com.vn/cong-doan/tao-thoi-quen-tot-cho-cong-nhan-20170318101607873.htm>